



2026. 9. 18 (금)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담대 '4억·DSR 35%' 넘으면 은행 위험 가중치 높인다

서울신문 <https://zrr.kr/CDUqEx>

금융당국이 대출액 4억원을 넘는 동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지금보다 높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은행의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금감원 "은행권 ETF 선취수수료 쏘림, 의도적 권유인지 중점 확인"

연합인포맥스 <https://zrr.kr/WYxopM>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판매와 관련해 선취 수수료로 소비자가 쏘림 배경이 자발적 의사인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의도적인 권유인지 중점적으로 확인
올해 은행권의 ETF 신탁거래에서 대부분(94.6%)이 6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에 달했기 때문

'당장 月 70만원씩 더 내라니'...40대 영끌족 '날벼락'

한국경제 <https://zrr.kr/MDnw4X>

국내 주담대의 30% 이상이 5년 고정형 대출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은 급증하는 추세
이에 따라 변동형 금리 선택 비중이 증가하며 7월 기준 주담대 신규취급액 가운데 변동형 금리 비율이 68.3%로 작년 7월 비중 11.2% 대비 큰폭 상승

'생애최초' 예외 심사 재촉하는 당국...은행권 "가이드라인부터"

머니투데이 <https://zrr.kr/Ab0Gy7>

금융당국이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예외 요건을 서둘러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할 것을 주문
요건 완화를 지시한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은행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팔을 걷어 붙인 것

삼성증권, 발행어음 상품 첫 출시... "안정적 자산관리 수단 추가"

머니투데이 <https://zrr.kr/YCIXkE>

삼성증권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단기 금융상품인 '발행어음' 상품을 오는 21일부터 판매
일반 발행어음으로 적립형 연 4.6% 수준으로 가입 가능

고금리에 떠나는 고객 잡아라...증권사 특판 경쟁

헤럴드경제 <https://zrr.kr/O4sLdJ>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위축에 증시 자금도 줄어드는 추세로 증권사들도 상품 금리나 목표 수익률 등을 상향 조정하며 고객 붙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
이번 금리 인상에 앞서 발행어음 금리를 최고 연 5%까지 높였고, DLB와 IMA에서 높은 수익률 제시, 신규 자금 유치와 타사 자산 이전, 상품 간 연계 혜택 등 경쟁이 전방위 확산

가계대출에 가려진 경고음... 보험사 중기대출 연체율 1.46% '비상'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FUu2Lg>

6월 말 보험사의 전체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분기보다 0.26%p 상승... 가계대출이 0.83%로 0.04%p 하락과 대조적으로 기업대출은 1.21%로 0.41%p 급등
특히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자 보험권의 잠재 부실에 대한 우려

"내 보험료 올리는 주범 잡아주세요"...금융당국, 年1조원대 보험사기 근절 나서

매일경제 <https://zrr.kr/19OlwO>

최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방지·적발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협의를 강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해마다 1조를 넘는 상황에서도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클래리티법은 막혔는데"...美 가상자산 과세법 첫 관문 통과

뉴시스 <https://zrr.kr/T3PHar>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별도의 가상자산 세제 법안이 진전을 보인 것

美 SEC, 토큰화 주식 거래 허용...배당·의결권 보장 의무화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vC97vx>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제 경로를 허용
투자업계에서는 토큰 보유자는 기존 주식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기업은 자사 증권이 토큰으로 발행되는 것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논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